

局長級은 從多數票로 決定

在日大韓基督教徒會
第20回記念
1964 10 28

在日大韓基督教總會
第20回紀念
1964 10 28

発行所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
文書委員會
大阪市西成区梅通5-2
電話 (651) 5196
発行人 丁 仁 寿
印刷所 僑 文 社
購読料 1部 20円(送料共)
毎月 1回 15日 発行

印刷なら . . .



僑 文 社

大阪市西成区梅通5-2
TEL (661) 6376・4669

같이活動하고禮拜하자

総会長 丁仁寿 牧師

제 20 회 총회는 무사히
마쳤으나 불초한 이 사람
이 총 회장의 중책을 맡
게 되어 다만 충구함은느
느끼나 아적구체적인개혁
은 없으나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최대의 노력을기
우릴 결심합니다 산하 각
교회 교우들과 동역자 여
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바
랍니다

생각컨대 우리 교회총회
는 창립 二十年을 맞이했
읍니다 오늘날 까지는 대
내적인 면에 전 역양을기
우려 왔던것입니다만 금
년부터는 교회활동을 일반
교포사회에 넓게 침투되도
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
법은 총회 임직원들을 비롯
한 관계 각 분야에서 심



생각컨대 우리 교회총회는 창립 二十年을 맞이했읍니다 오늘날까지는 대내적인 면에 전 역양을기우려 왔던것입니다만 금年부터는 교회활동을 일반교포사회에 넓게 침투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총회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 각 분야에서 심중히 토의하여 적절한 처사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의거하는 것보다는 교회와 교포들의 단체와 활동에 연락조차 없었던 형편이었읍니다 거기에는 미차간 피

총회에 서논의한 안건은	전부 三十一건인데 총회의 결정	활동방향 정책 선교대상인 전체 혹은 부분적 조사에 관한 것은	三 桑名지방과 品川교회 의정비 소 보조에 관한건은 전 도부와 임직원회에 부했다
--------------------	---------------------------	---	---

생적인 견해뿐이었고 심
 중한 문제 당면한 과제
 썬의 대화의 왕래가 없었
 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
 국을 떠나 이역에 사는 소
 수민족으로 공통된 이해관
 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러나 그리스도교회의 해야
 할 것과 일반동포를이 합일
 에 관계조차 논의 되지 못
 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금후에는 이런 점에 더욱
 노력하여 보려합니다
 총회산하 모든 교회는 교
 회의 기반을 그리스도의 복
 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
 우고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노력을 할과 등
 시에 교포사회 각 방면에
 서슴지 말고 협력 노력하
 는 일들이 있도록 되기바
 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토
 착화 활동에도 연관되는줄
 로 압니다 그럴 때라도
 복음의 순수성과 특수지역
 의 실정을 을바로 파악하
 도록 각양 연구 검토한후
 에 과감히 활동하기 바랍
 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병정
 으로 주의 사업을 주의정
 신(요한十五章五)을전개
 하여야 할것이다 즉 포도나
 무에 부터서의 활동인테 즉
 그리스도교적 활동 이역야
 한다는 것이다
 그결과 재일교포들의 정
 신적 오와 씨므로 교회에우
 리 동포들을 영접할수 있
 게될것입니다 동포들도 그
 사실을 참 샘인 복음에서
 알아낼것이며 할기 있는생
 활을 하게될줄로 압니다
 이역의 교포들도 귀를 기
 우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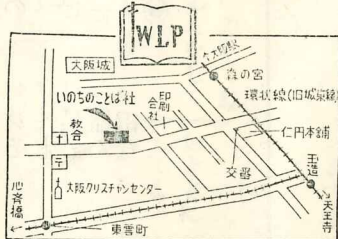
제二十회 총회 기록에의 하면 대한 기독교 성결교 회 소속이셨던 최익수 목사님이 재일 대한 기독교 회총회에 가입을 신청 하 셧기에 만장일치로 수락하 고 총회장의 사식으로 서 약식을 행하고 박수로 환 영했다고 한다	최 목사님의 이 같은 결 심에 이르기 까지에는 다 른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 운 공통도있었을 것이다	단일 계통 교파로 순수 히 한국민족의 감정에 호 소 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지속해 오던 한국의 성결 교파가 최근에는 세계교회 의 사조에 부닥쳐 돌로분 립한 후 목사님은 대한기독교 성결교계통으로 계시	제가 일본에 오셨다 일본에 오신후에도 국제 복음선교단과 재일한국기독교회총회와 과거성결교 계통 신도를 사이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지나 시면서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총회산하의 広島 교회를 도우 시기도 하셧으니 협소한 파벌 주장을 벗어나 겸손한 고집하는 분들 사 이에서 적지않은 과란이있 었을 것이 추상된다	이제 긴 과거를 뒤무리 하는 이야기는 그만 두거 니와 일본이란 외국에서그 리스도의 교회만이라도 한 덩어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선교에 전 역양이 발 휘되어지기 바란다
---	--	---	--	--	--

崔益守牧師_를歡迎_하며

中国(広島)地方発展을期한다

聖書・聖歌・讚美歌

キリスト教書籍
クリスマス用品



いのちのことば社
大 阪 支 店

大阪市東区東阪町 4 5 1
電話 (761) 8 6 4 3

キリスト教のいろは
島村亀鶴著 定価180円

恋 愛 論
高木幹太著 定価240円

私 の 人 生 論
北森嘉蔵著 定価250円

山 上 の 祝 福
菊池吉弥著 定価200円

対 話 の 神 学
北森嘉蔵著 定価280円

生きる意味について
 佐古純一郎著 定価230円
 聖書とところどころ
 北森嘉蔵著 定価220円
 聖書入門
 北森嘉蔵著 定価240円
 愛と憎しみについて
 北森嘉蔵著 定価280円
 キリスト教問答
 佐古純一郎著 定価220円

教 文 館

東京都中央区銀座4の2

振替東京11357

十二月五日

万国聖書主目

書聖普及協助

金泉堂

貴金屬類製造
寶石 時計 販賣

神戸市長田尻池町五ノ一二八
電話神戸【7】六八三八番

福音宣教の前進을爲해

總会の体質改善이 必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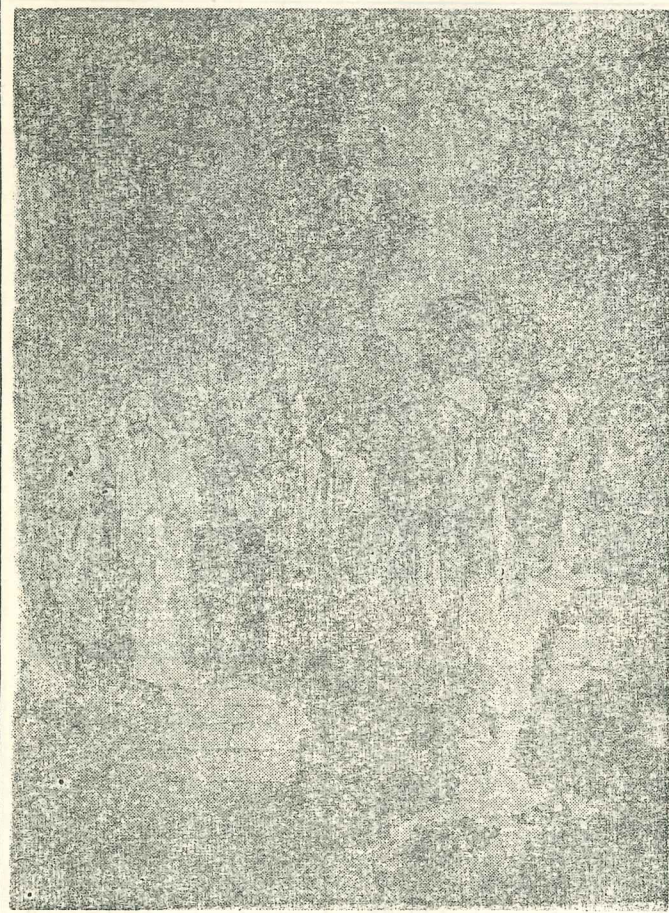
羅 中 男

재일대한 기독교회 총회
는 교회의 회고회의 기관
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때
문에 각 지방에서 상회
의(교인) 총대를 선출하
여 교직자 목사 신도대
표로 장로를 선출형식으로
참가시키는 것이다.
재일본 대한기독교회 총
회는 제3회 정기총회의 감
동교회 기관이 아니며 국
단한 개교회주의도 아니
고 총대에 의하여 교회정
책을 발제하여 회의체제
것이다. 따라서 총대들은 각
지방의 실정을 정확히 파
악하여 상회회의에 보고하
며 각 지방 실정보고를 잘
이해 분석하여 교회체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므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노할 일
재일대한 대한기독교회 총
회는 제3회 정기총회의 감
동교회 기관이 아니며 국
단한 개교회주의도 아니
고 총대에 의하여 교회정
책을 발제하여 회의체제
것이다. 따라서 총대들은 각
지방의 실정을 정확히 파
악하여 상회회의에 보고하
며 각 지방 실정보고를 잘
이해 분석하여 교회체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므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예수전화보 (45)

예수께서는 반대파의 모
략에 걸려 가약바의 법정
에서 재판받으셨다. 예
수께서는 재판관에게
「너도 저 재판관
보다 나은 것이 있
나?」라고 물었다.
재판관에게 「네가
나를 재판할 수 있
나?」라고 물었다.
재판관에게 「네가
나를 재판할 수 있
나?」라고 물었다.



부정하는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
고 서서 예수께 「나도 너와
같이 생각하는 자
가 있나?」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며 「너도 저
재판관보다 나은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
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며 「너도 저
재판관보다 나은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찬미의 샘 (六)

五四八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저복방어름산

各部署의活動論議가 필요

주은혜 받은 우리는 이
1번이 되는 인도 선교사로
큰 책임을 잊고서 주에
수의 참된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온 교로 자제 각
종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참도를 깨닫도록 온 몸
제들과 재산을 드려 이복
음을 전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 찬송은 一八一九年五
월에 영군 북동교회에서 부
르기 위하여 R. 헤이비
가 지은 것이다 그 후
필을 안다 지금이 어느때
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는가
피차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볼 만은 없
는가

二十회총회를 마치고 들
아온 총회임직원들 어느국
장의취임소감과 포부를 무
튼바 「왜 내게 이 같은 자
리를 맡기려하는지 모르겠
다 제지도 없다 말했으니
말은 것인데 책임자는 다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국원들의 의견을 물어
서 일을 할까한다」고 하
셨다 이 말은 겸손한 분
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
이라고 반을 것이 아니
다 필자도 그의 의결과제
회과 능력의 소재를 알기
때문에 문외의 결과였다
말하자면 각부서의 책임
자를 투로로 결정하기 전
에 총회의 노선과 방향에
활동의 기본선을 명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느부
서는 어떻게 활동해야 하
는지를 포시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총회 임직
원회에서 명시 못하였으면
각부서를 맡아서 일을 해
보겠다는 일군들에게 임후
보제를 허락하고 계획안을
발표하게하고 그것을 보고
들은후 보나온 발전계획
한 토론을 하고 종합적결

三菱電器特約店

ヨブヤ

◎サービスの店

電器具ミシンなら
なんでもそろろ

岩 本 正 男 (北部教会員)

阪急宝塚駅より手山300米

電話宝塚⑥ 6208 (呼)

愛 コリント前書13章の
生活体験による歌義

車いすの使徒

三つの愛

荒野に水は湧く

見える 告白 癡者の

百三人の賀川伝

60 送料 20	武藤富男 著
180 送料 30	杉原五郎 著
150 送料 20	村上 治 著
100 送料 20	田中芳三 著
180 送料 30	吉成 稔 著
600 小包	武藤富男 編著

キリスト新聞社

東京・神田・錦町

振替東京一九六〇一六

다면 총회의 부서에 있어
서도 일년동안에 전체적
노선 계획도 없는 총회에
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체가 심중히 생
각하고 적당부분이 라고하
면서 말했으면 가끔 조인
해서 말하면 단계를 밟아 전
혀서 전체 교회가 질적으
로 향상하고 양적으로도
도록 처사 하도록 三年이
나 혹은 五年을 말기면 어
떨까 생각된다 후시는 신
학적 대립이나 그라의 파
벌이 있어서 감투를 자기
전영이 빼앗아야 한다는너
무나 인간적인 의도가 있
다면 이말은 공담이 될
것이다 마는 우리는 일본
이란 남의 나라에 사는스
산한 소수 민족의 기관이
면서 도 어느 누구의 사리
사욕으로 이 일을 하는것
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
시는 복을을 전하는 기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
도록 하되 인간들의 가
난 노역을 기우려 보자는
것이다 거기에는 세우고
만든 체제를 개혁하는일
도 있을수 있으리라 생
되기 에 말한다

キリストに在って生きるもの

共同体の動き

去る第二回全国協議会中央委員会において、私共の全国協議会の反省と方向、即ち基本的視点を追求した。ここに一年間の全協のプログラム活動方針を報告いたします。

全国協議会が結成され一年半を経過した今日、各教会との密なる関係を如何にして保ち、発展させていくかという点に焦点が向けられて来た。そもそも、各教会青年会、福音を共に悩むという方針から出されたこの組織である。今更、こと新しげに云々することはないわけであるが、今迄の中央委員会制度と認識の上においては問題視せざるを得ないものである。

先ず中央委員会そのものの反省を若干してみたい。全国協議会のためのものではあったこと。各教会との結びつき更に協議会の成果と方向が生まれて来ないこと。組織的な広範囲の活動が殆んど出来

ないこと。中央委員会の内容の充実と継続性が稀薄なこと等、多くの問題を挙げることも出来るが、確かに過去十数回の全国協議会を盛大に維持されて来たことは高く評価されるべきである。学びとらねばならない点であろう。それでいて中央委員会が浮いていないという言葉が出て来るのはどうしたことであろう。

裏返して云えば私共青年会自身の主体性の問題へと帰ってくる。あなたまかせの非常な消極的な諸種のプログラムへの参加ではなかったか。一概にそうだとはいえないが、概して運動の展開がチグハグな所からこうした問題が起つて来たことは確かであろう。こうした反省点を荷いつつ解決への糸口として全国協議会が発足した事は周知のことであろう。今年更に、この反省点を背負い、これを具体的な基本点として私達は次の如く目的を定めることが出来る。各教会青年会との相互連絡と協議、私共の具体的なキリストの証しと生きる場の理解を知らしめ、研究していくこと、キリストの福音理解を私共の生きることに関わりにおいて把え、更に決断を促すことである。各教会、各地方教会との関わりを重点的に考えつつ、全国的なレベルの物に見方と考え方が必要に迫られている。中央委員会の課題が余りにも大きいことを共に研究していくか、ねばならないことは必然的といえる。全国的レベルの運動の展開というものは十分に配慮されねばならない。そういう意味では、今迄述べて来た点を発展的に捉えていく中で、協議会においては中央委員会に於いては、地方会との積極的な協力が特に必要なこと、地方会の特

殊性を生かすことなど更に中央委員と各教会との直接交流による相互理解、出版物による方法、青年局との積極的な話し合い（指導面、経済面の援助を受けつつ、その指導理念と迎合し、常に共闘、その中で尚私共の主体性と個性を十分に反映していくもの、全国協議会のもつべき活動部門を、運動しながら、私共の働きを確固たるものに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全国協議会が私共の全協の活動の一環であるという認識のもとに把握するという方向である。今迄の関連からして、私共のものにしていく人間であること、その出発点に先ず立ちたい、人と人との交わりの中で真に生々とした人格的な交わりを可能にし、出会いの喜びを可能にするのはイエス、キリスト以外はない。共に生き、共に働か

共に学び共に造る共同体形成を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キリスト者の共同体が孤立したものではなく、真にこの世に仕え、働いていくものなのである。真に福音を理解し、私共の愛肉されるものとして私共が受けとめ、人間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神との垂直的な関係に生きる時、むしろ現実の生活に受肉していくものである。福音は人間を追求していくものであり、人間の解放をなしていくものである。私共をとりまく民族、家庭、経済、文化等々の現実の問題そのものを直視していくことを問いつめられることは疑い得ないことである。一世や二世の私共の現実の苦しさは耐え難いものとして、体験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あらゆる環境、状況を分析していき、真剣に対決していくことは怠たつてはならないのである。私共、主にあって生かされている青年として、逃避することなく自分の重荷をしっかりと載せ、共に担っていくことが要求されているのである。（崔 忠植）

1964年度総決算

	収入	支出
収入の部		
全国協議会会費	23,800.00	
全国協議会参加会費	24,000.00	
夏期全国修養会参加会費	273,400.00	
交通費プール制負担金	19,900.00	
発行物売上金	3,700.00	
今年度青年局負担金	80,000.00	
雑収入	304,300.00	
前年度繰越金	15,785.00	
支出の部		
中央委員会経費		24,710.00
全国協議会経費		38,820.00
事務通信費		39,865.00
出版費		84,560.00
夏期全国修養会諸経費		400,630.00
交通費プール制援助金		26,850.00
雑支出		129,280.00
次期繰越金		170.00
総合計	744,885.00	744,885.00

(1963年10月1日より1964年10月1日迄)

一中央委員会財政部会計一



神への全面的信頼

神は、神を愛する者たち、すなわち、ご計画に従って召された者たちと共に働いて、万事を益となるようにして下さることを、わたしは知っています。（ローマ書八章二八）

最近読んだ中のこの聖句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私達は一旦この世に、理性のある人間として、生命を与えられたからには、人間の力ではどうしようもない「死」といふ所に生きつく道を、せいいっぱい生きる義務と権利が与えられている。

神は、神を愛する者たち、すなわち、ご計画に従って召された者たちと共に働いて、万事を益となるようにして下さることを、わたしは知っています。（ローマ書八章二八）

最近読んだ中のこの聖句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私達は一旦この世に、理性のある人間として、生命を与えられたからには、人間の力ではどうしようもない「死」といふ所に生きつく道を、せいいっぱい生きる義務と権利が与えられている。

読美歌聖書

キリスト教圖書全般

日曜世界社

大阪市天王寺区悲田院町二八
振替 大阪一六七四電 (771) 〇九八五

御旨の内には、人間の到底倒り知れない計画が含まれている。

ここで私は、神に対して感謝とそれに対する応えを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人に対応して、神から与えられた場、環境（言及すれば、性格、才能等）を如何に受け入れて行くかが、私達に問われている問題である。この場合、私達人間にはとやかく云う筋合いも権利もないのである。

万事を私の為の益として下さる事を知っている私は、実に幼な児が、親に甘えてすべてを委ねる如く、又、私の将来には、どんな予定が、試験が待ち受けているかも知れないが、私の堪えられない様な試験にあわせる事のないのを信じつつ、（失敗も試験もすべては私の為、試験でもって私という人間が出来上つてゆくのだから）神に私のすべてを託して行きたいと思ひます。

こんな私は、余りに人間としての自由、主体性に欠け、そして自分勝手に神の存在を創造し、それを信じ込んでいく。おめでたい人間なのだろうか？……

過去の、いや、現在に於いても、全てが虚しく、しかし常に何かに迫り立てられている様な気がし乍ら、ただ川面に浮かぶ木の葉の如くに流されるままに流れて行く状態である。時々、私って生きていくのか？なんて自問したと思っています。

現在の私は、信仰（と云えるかどうか、ただ言葉を貸していただけなら）的に燃え上がる事はないかも知れないが、せめて燃えているものでも消えない様に、自分に与えられた量りに従って、神の栄光を現わし（？）て行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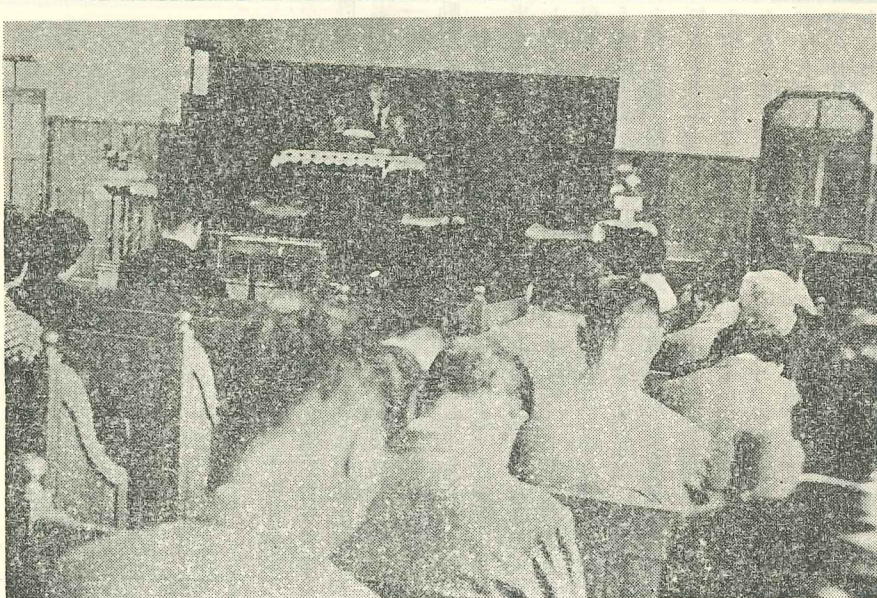
崔 貴永（堺教会）

祝福を願う前に先ず感謝

感謝節に想う／

平野教会 丁 仁 寿

イスラエル民族の数千年間の歴史の流れの中には、数多くの亡びの時代と、栄えの時代が相まじっている事はない。その出来事である。その理由をさがして見よう。先ず亡びの時代の原因は何処にあったか、イスラエルの民族は世界中で特別なエホバ神様の愛護と、祝福を受けた民族である事は否定出来ない事実である。あの十戒の映画を見て、旧約聖書の出エジプト記を見てもよくわかるのである。ところが此處で私達はよくよく知っておかねばならない事がある。それは神様がイスラエル民族を愛護し祝福する時には、一つの条件があったのである。或時は相互に約束が結ばれたのであった。



る者にはもつともつと祝福する神である。一国家も、一家庭も、個人も皆同じことである。ピリピ人への手紙四章六節を読んでみると、先ず感謝して、後に祝福と願いを祈りなさいと書いてある。人間は神に対して感謝をするにしても、心をこめて感謝しない。初めに祝福を求める時と同じく神に感謝

西洋での幻

C.C.S 生

カナダに上陸して二旬を数えました。旅としても一つの円を描き終えたので、この辺で発見したことを纏めてお知らせすることに致します。邪推のたぐいによって曲解されることは望ましくないのでも少しばかり私事について断っておかねばなりません。私の目指していることは個人的な求道の仕事の一端としての学問研究ですから、努めてカナダ教会に物心両面の負担を掛け

は重圧から救われたと言っても良い位のものです。初めに中村先生とバンクーバーにおられるご両親とご祖母様の温かい心について述べねばなりません。考えようによつては中村先生には却って礼を失ふことになるかも知れませんが、是非記しておかなければこの一文の主旨が崩れます。空港から夜行列車に私達が乗り込むまで一日を、わが子等の帰省のように細かく心を遣われぬ隙のない配慮で貴重な時を犠牲にされたのです。ご病床の祖母様はけなげにもこの地を訪問したところのある教友の方々の名を一つ一つ思い出しながら懐かしく下さるのでした。大陸の真中では、ハインドマン先生の妹、ご夫妻の温かい出迎えをいただき四人の大部隊をご自宅に招き入れ快い一夜の宿を許されたのです。可愛そうにもゴルトン君とナルド君は部屋を提供するために裏庭のトレラーの中で寝たのです。これは旅人への尋常な好意とは別なもので、この好意を感謝せずにはいられませ

す。私達は文字通り心の肌を刮られる程の感動と興奮に襲われました。大学のある市には、タルボット先生の親友であるホッチソン博士がおられ、前夜はわざわざ遠距離電話で私達の到着を確認され、駅頭で迎えて下され、ご自宅での晩餐でもてなし、直ちに捜しておいた私達の住居へ運んで下さいました。家具、寝具、食器、はては食料品に至るまで、ご夫妻で用意を整えてあったのです。私達は唯々倒され佇然とさせられました。後に分ったことですが、博士の教会の壮年会がこのために数次の会議を重ねて計画され市内七つの長老教会の婦人宣教師がこれに呼応するという尊い労苦と犠牲があったのでした。此処に博士の家に寄宿して居られる。東北大学の助教授田口先生のことと忘れぬわけにいけません。多忙な研究生活を、私達のために博士と共に労して下され、この市でお会いできた唯一の日本人としてその好意を感謝せずにはいられませ

ん。これら母のような配慮と心を、私は何とかしてそちらの教会に返上したいと思うのです。この一連の動きは人間の真情の動きとして、それだけでなく、私達にとっては生涯の記念に値することは勿論です。しかし、私はもつと奥までのぞかねばなりません。カナダ長老教会の、そちらの教会に対する宣教師の関心の表現と理解する外なかったのです。そして、そのためにこそ、私は今一つの幻を見てい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十一月・カレンダー

大の真面目である。しかし、いかん本当にいかんよ、他に

が起れば、当事者と心行くま

その青年会が本場に福音にふ

全国協議会中央委員会発行

が、感謝節をむかえ、一段と

新しい気持ちで十一月を迎えら

願って、北韓国の選手をも私

のものとして……と思ってお

行ってもならず、止めてもな

決へと心をそがねばならな

ならない。又、退会したこと

によって、一番福音にふさわ

しくないのが退会した御本人

りまして、開会の前に「退

場」ということになり、色々

な意味で「小児病」的で、ニ

ガ笑いの出来ない姿になりさ

がりもう何をか言はんやであ

る。要は、何んでもかんでも

「退場」と言う切り札はいけ

ない。同じ広場にあってこそ

意味のあるものであり、又、

戦うと言うことも出来るもの

である。同じことが、教会の

中でも言うことが出来る。よ

く青年が、うちの教会の牧師

の説教が、うちの教会の役員

の何々か、気に入らないので

教会を止めるか、他に行くか

しようと思ひますと、相談に

来る。それも本人にとっては

問題があるのだから、問題

し、やはり退会はいけない。

(寿)

ことになり、問題は問題のま

ま、残ると言うことになる。

それでは解決と言うことには

ならない。勇虫のすること

あり、本心に勇気のあるもの

のすることではない。私共は

キリスト者としてこの世にあ

って召されているので、問題

合わない」と退会したと伝

え聞く、私は個人的にも「退

会した」と言う本人を知って

いるが好感のする人物であ

る。彼が退会すると言うから

には、よほど腹にすえかねた

問題があるのだから、問題

し、やはり退会はいけない。

その青年会が本場に福音にふ

さわしくある為に努力せねば

ならない。又、退会したこと

によって、一番福音にふさわ

しくないのが退会した御本人

りまして、開会の前に「退

場」ということになり、色々

な意味で「小児病」的で、ニ

ガ笑いの出来ない姿になりさ

がりもう何をか言はんやであ

る。要は、何んでもかんでも

「退場」と言う切り札はいけ

ない。同じ広場にあってこそ

意味のあるものであり、又、

戦うと言うことも出来るもの

である。同じことが、教会の

中でも言うことが出来る。よ

く青年が、うちの教会の牧師

の説教が、うちの教会の役員

の何々か、気に入らないので

教会を止めるか、他に行くか

しようと思ひますと、相談に

来る。それも本人にとっては

問題があるのだから、問題

し、やはり退会はいけない。

(寿)

ことになり、問題は問題のま

ま、残ると言うことになる。

それでは解決と言うことには

ならない。勇虫のすること

あり、本心に勇気のあるもの

のすることではない。私共は

キリスト者としてこの世にあ

って召されているので、問題

合わない」と退会したと伝

え聞く、私は個人的にも「退

会した」と言う本人を知って

いるが好感のする人物であ

る。彼が退会すると言うから

には、よほど腹にすえかねた

問題があるのだから、問題

し、やはり退会はいけない。

その青年会が本場に福音にふ

さわしくある為に努力せねば

ならない。又、退会したこと

によって、一番福音にふさわ

しくないのが退会した御本人